



9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린 '키스해링전과 함께하는 문화장학생 프로젝트'에서 참가자들이 토마스 언더우드 주한미국대사관 지역총괄 담당관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키스해링 작품세계 신선한 문화 충격

지난 9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팝 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전'이 열리고 있는 미술관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오는 3월 대학교에 입학하는 새내기 16명이 주인공이다. 동시대 공연전시 기획학과와 (주)엠허스트가 공동으로 기획한 '키스해링전과 함께하는 문화장학생(culture scholarship)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이다. 말 그대로 '문화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미술관을 방문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화제를 모은 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예비대학생들이 점차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8~9일 이틀간 열린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동신대, 광주보건대 등 예비신입생 3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 학생들은 비록 두툼한 글꼴 붓은 받지 못했지만 대신 팝아트의 거장 키스 해링(1959~1990년)의 작품세계에 흠뻑 빠지는 색다른 경험

'문화장학생 프로젝트' 참가 예비대학생 16명

"팝아트 이해할 수 있어... 대학생살에 큰 도움"

"예술 가까이 하는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 되길"

했다. 그동안 입시스트레스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컴퓨터 게임 등으로 달렸던 일부 학생들은 신선한 문화충격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무료관람을 시작으로 키스해링전시회를 기획한 최진한 (주)엠허스트 대표, 후원기관인 주한미국대사관 토마스 언더우드 지역총괄담당관과의 뮤지엄 토크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참가자들은 서른 두 살에 세상을 뜬 천재 화가의 치열한 삶과 예술세계에 큰 흥미를 보였다. 짙은 색, 빛나는 아기 등 유명 패션브랜드 등을 통해 친숙한 이미지들을 접할 때는 입가에 미소까지 띠었다. 김영인 군(19·전남대 자율전공

학부 1년)은 2년 전 우연히 구입한 옷에서 처음 키스 해링의 작품이 미지를 보고 관심이 생겨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케이스. 김 군은 "생소했던 팝아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자주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찾아 '문화적으로' 대학생살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관람에 이어 마련된 뮤지엄 토크는 현대사회에서의 예술의 의미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는 특별한 자리였다. 이번 프로젝트에 연사로 참여한 토마스 언더우드 주한미국대사관 지역총괄담당관은 자신의 대학생활을 되돌아보며 예술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언더우드는 "술과 담배, 컴퓨터 게임 등은 일시적인 쾌락이 될 수 있을 뿐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참가자들이 앞으로 예술을 가까이 하는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명의 교수(동신대 공연전시 기획학과)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한 최희기양(22·공연전시 기획과 4년)은 "흔히 대학생들이 즐기는 문화생활을 보면 영화관람인 경우가 많다"면서 "후배들이 영화뿐 아니라 전시, 공연 등 보다 다양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 공연전시기획학과는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린 감상문과 사진들 가운데 우수작 1편을 선정, 주한미국대사관의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

"을 밸런타인데이는 키스 해링과 함께."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오는 14일 특별이벤트 '사랑합니다-키스 해링과 함께 하는 밸런타인데이'를 마련한다.

연인들의 기념일로 불리는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착순 214커플을 대상으로 키스 해링의

밸런타인데이는 키스해링과 함께

214커플에 포스터·액정클리너 증정

작품이미지로 제작된 포스터(3종)와 액정클리너를 증정한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30분~오후 7시가

이다. 금·토요일은 밤 9시까지 연장 개관한다. '팝 아트 슈퍼스타, 키스해링'전

은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전시작은 '남아프리카에 자유를' '빛나는 아이' '회상' '침묵=죽음' '아이콘' '팝스' 등 모두 150점이 선보인다.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이며 단체(20인 이상) 관람은 2000원이 할인된다. 문의 062-613-5396.

육자배기·흥타령... 남도소리의 세계로

17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올 첫번째 무대

어깨춤 덩실거리는 국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심인택)이 '전라도, 전라도 사람들의 삶-육자배기·흥타령'을 주제로 올 첫번째 무대를 갖는다. 17일 오후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이번 무대는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흥타령'과 '육자배기'를 만남, 사랑, 이별, 그리움 등 4가지 주제로 나누어 각 사설을 주제로 엮어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개고리타령', '흥타령'이 각 한바탕의 노래가 되도록 재구성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의 대표 여성 소리꾼들이 무대를 빛낸다.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주소연(사 한 국관소리보존회 광주지부장), 전남대 출신으로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자인 박복희, 전주판소리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방수미(남원 국립민속국악원 부수석)씨가 그들이다.



<주소연>



<박복희>



<방수미>

이들은 각 주제별로 한바탕씩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 주제인 '그리움'은 세 명의 소리꾼이 한목소리도 들려준다. 티켓 가격 1만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달집태우기... 연날리기... 풍성한 대보름축제

시립민속박물관 12일 '정월대보름 한마당'

"흥겨운 전통 놀이 즐기면서 뜻 깊은 정월대보름 보내세요."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문승빈)은 오는 12일 오전 10시~오후 8시 정월대보름(17일)을 맞아 옷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달집태우기 등이 곁들여진 '2011 빛고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크게 기원마당, 놀이마당, 공연마당, 나눔마당 등 네 마당으로 진행된다. 기원마당은 광산농악보존회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광주시립국악단의 대보름 신명 한마당 공연, 당산제, 달집태우

기 등으로 이어진다.

또 놀이마당은 창작연날리기, 민속놀이 경연, 널뛰기 등 놀이체험과 빛고을 큰 줄다리기로 진행된다. 아름다운 전라도 말 자랑

대회, 어린이 및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국악 공연 등도 곁들여진다.

이 밖에 나눔마당은 찰밥, 주먹밥, 막걸리를 함께 나눠 먹는 모꼬지 행사,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062-613-533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민 25% "높임말 점차 없어져야"

욕설·비속어 습관적 사용 5년전보다 11배 늘어

우리 국민 약 25%는 높임말이 점차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욕설이나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국민도 크게 늘

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국어원이 2005년에 이어 지난 해 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5000명을 면접조사해 10일 공개한 '2010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어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는 2005년 60.9%에서 2010년 45.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어 사용에 대해 '반드시 유지, 존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87.5%에서 2010년 78.1%로 다소 낮아졌다. 특히 '경어는 상하 관계를 강요하는 불평등의 요소가 많으므로 점차 없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11.4%에서 25.0%

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방언 사용에는 더 관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언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62.0%로 2005년의 26.3%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TV 대담·토론 출연자의 방언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60.5%에서 44.1%로 낮아졌으며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47.6%에서 38.6%로 낮아졌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49.0%로 2005년(50.5%)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욕설 및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은 1.2%에서 13.5%로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초점(삼일초점) 상설로 입구: 022276-057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입: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회) 입: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서면역) 입: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입: 032617-5110 수원점(남문) 입: 031246-5110 의정부점(북촌로터리) 입: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림2001) 입: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입: 031658-5110 용인점(용인내거리) 입: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입: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입: 032039-4400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입: 051818-8800 서면점(서면) 입: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로터리) 입: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입: 055297-6060 진주점(구.동명시장) 입: 055745-9870 창원점(한양병원) 입: 055284-5055 대구 동원점(동원내거리) 입: 053425-4440 삼척점(삼척내거리) 입: 03426-1511 남양주점(아라미로터리) 입: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로터리) 입: 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로터리) 입: 054659-2248 광주 광주점(구.도동) 입: 062225-5110 광주점(백동시장) 입: 06285-4477 전남 순천점(순천사거리) 치유장기점(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신복로터리) 입: 063252-5728 군산점(구.시정문) 입: 063446-0198 익산점(익산시장) 입: 063638-5900 남원점(남원시장) 입: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동) 입: 042254-5110 대전점(충촌로터리) 입: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입: 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입: 041553-288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입: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입: 043122-1177~8 충북점(삼천로터리) 입: 043852-1414 강원 강릉점(강릉역) 입: 033647-0588 춘천점(춘천역) 입: 033625-5110 제주 제주점(제주로터리) 입: 064753-435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	-----------------------------------	-------------------------------